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3호(1997): 49~6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미국 앰허스트학파의 탈근대적 맑스주의

신조영*

맑스주의는 실로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다. 맑스주의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파악하는 것 — 다시 말해 맑스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경직된 체계가 아닌 다양한 흐름, 상반된 경향들이 함께 어우러진 '열린'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를 서로 상반되는 적대적 이론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양자의 비판적·창조적 융합을 통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맑스주의는 기계적 계급론에 기초한 하나의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탈근대주의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탈근대주의는 이름만 달리 한 또 하나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전통적 맑스주의의 입장 역시 거부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탈근대주의의 '거대담론의 해체'가 갖고 있는 혁신적 통찰력을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맑스주의 전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경험론/합리론, 인간주의/구조주의 등과 같은 모든 결정론적 이론틀로부터 맑스주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맑스주의 속에 존재하는 반결정론적 충동 혹은 순간들을 뚜렷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맑스주의/탈근대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 이들 사이의 새로운 조율 가능성을 열었다.

1. 탈근대적 맑스주의: 제3의 대안

맑스주의는 실로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주의라고 하면 흔히 하나의 신념과 하나의 행동강령으로 구성된 일사불란한 하나의 이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체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단 하나의 맑스주의만 존재했던 예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맑스주의라는 다양한 흐름과 갈래 속에 주류를 이루는 사조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한 부류의 맑스주의를 맑스주의 전체로 확대 해석할 때 뒤따르기 쉬운 이론적·실천적 '닫힘'의 가능성을 조심하고자 할 따름이다. 눈에 잘 띄는 맑스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맑스주의는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목소리가 유난히 큰 맑스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또 귀에 잘 안 들리는 다른 종류의 맑스주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때 맑스주의이론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평면적인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맑스주의 전통 속의, 또한 맑스주의와 비맑스주의 사이의 여러 상반된 흐름과 갈래들이 빚어내는 상호 역동적인 지식의 생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를 이렇게 '단수'가 아닌 '복수'로 파악하는 것—다시 말해 맑스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경직된 체계가 아닌 다양한 흐름, 상반된 경향들이 함께 어우러진 열린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맑스주의를 논의하는 데 (그러한 논의가 맑스주의를 비판하든 옹호하든)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갖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가 바로 맑스주의를 복수의 열린 체계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서로 상반되는 대립적 이론 더 나아가 적대적 이론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적 융합을 주장하는 미국내 앰허스트학파[1]로 일컬어지는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경향에 대해 살

1) '앰허스트학파'(The Amherst School)가 이들의 공식명칭은 아니다. 굳이 형식적인 이름을 찾는다면 이들의 공식 학술단체인 '경제사회연구회(The Associ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Analysis)학파'라든가 또는 이들이 발간하는 학술지 이름을 따라 'Rethinking Marxism학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이 없다는 편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들이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대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 자칭 타칭 앰허스트학파로 많이 불린다. 또 이들의 이론이 프랑스 맑스주의 사상가 알튀세르(L. Althusser)에 대한 재해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앰허스트 알튀세르주의자(The Amherst Althusserian)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알튀세르의 사상이 너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데다 이들의 알튀세르 해석 또한 전통적인 견해에 비추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알튀세르주의자'라는 말은 극히 이질적인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부를 위험이 있어 피했다. 이들 이론의 특징을 따라 '탈근대적 맑스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필자의 견해로는 영국의 홀(S. Hall)류의 '문화학'(Cultural Studies)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적으로 좁은 의미의 '앰허스트학파'와 이보다 좀 넓은 의미의 '탈근대적 맑스주의'를 혼용하였다.

펴보고자 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지양하고 이들의 비판적이고 창조적 융합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맑스주의는 기계적 계급론에 기초한 하나의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탈근대주의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탈근대주의는 이름만 달리 한 또 하나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전통적 맑스주의의 입장 역시 거부한다. 즉 탈근대주의는 근대주의 속의 결정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결정론적 맑스주의를 맑스주의 전통 전체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맑스주의 전체를 내다 버리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그토록 중시하는 탈근대주의가 맑스주의의 다양성에 대해서만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자기모순이다. 또한 전통적 맑스주의의 경우, 탈근대주의의 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궁극적으로 반맑스주의적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탈근대주의가 주장하는 '거대담론의 해체'가 갖고 있는 폭발적 가능성을 맑스주의가 추구하는 '기존질서의 해체'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앰허스트학파가 제시하는 탈근대적 맑스주의라는 제3의 대안은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으로 야기되는 서로에 대한 소모적인 비난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이다. 앰허스트학파에 따르면 이러한 양자 사이의 창조적 조율은 맑스주의의 터전에서 가능하다. 앰허스트학파는 맑스주의가 하나가 아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듯이 탈근대주의 역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탈근대주의의 '맑스주의에 대한 무차별적 매도'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 속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무기력과 때로는 극단적인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탈근대주의의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은 맑스주의 입장에서 수용 발전시켜야 할 잠재적인 폭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탈근대주의의 혁신적 통찰력과 잠재적 보수성을 함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맑스주의를 통해 탈근대주의의 논의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탈근대주의의 '형이상학의 해체'가 갖고 있는 혁신적 통찰력을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맑스주의 전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여러 갈래의 다양한 맑스주의 중 특정 맑스주의와 다기다양한 탈근대주의 중 특정 탈근대주의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탈근대주의의 흐름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은 물론

이고 맑스주의의 풍부한 전통 또한 결코 대표할 수 없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자기 이론의 부분성·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한다. 더 나아가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무릇 모든 이론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그러한 이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결국 보편타당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편파성과 특수성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수사학에 불과하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절대적 진리에 대한 거부는 결국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맑스주의) 역시 여러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 이론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이 점이 전통적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무기를 적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배신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무신론'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혼란과 혼돈의 어두운 심연에 지레 질려 종래의 '역사발전의 절대법칙'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거대담론으로 돌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급'은 이미 그림자처럼 증발해 버렸다는 식의 보수적 탈근대주의도 단호히 배격한다. 대신 맑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열한번째 테제'[2]에서 말한 대로 모든 이론은 다양하고 상반된 여러 진리들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구축·확보하기 위한 주도권을 둘러싼 필연적인 사회적·정치적 참여임을 분명히 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모든 이론이 옳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론이 초역사적·범사회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존재와 그 존재를 설명하는 이론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은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산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부 탈근대주의자들의 다양성처럼 역사와 사회로부터 뿌리뽑힌 '허공 속의 다양성'은 아니다.

2. 앰허스트학파의 초결정론: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연결고리

앰허스트학파의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알튀세르의 초결정론[3]에 근거를 두고 있

2)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맑스, 1991: 189).

3) 초결정(overdetermination)은 '과잉결정', '중복결정' 등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근대

다. 알튀세르의 초결정론[4]은 맑스주의이론과 비맑스주의이론을 망라한 모든 결정론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다. 알튀세르의 이러한 이론작업은 '양날의 칼' 또는 그의 표현대로 "이중 개입"(Althusser, 1990: 12~13)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알튀세르는 한편으로는 맑스주의 밖의 모든 부르주아이론을 본질론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주의내의 경제결정론을 비롯한 모든 결정론을 궁극적으로 맑스주의판 본질론이라고 비난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맑스주의는 분명히 부르주아 인식론과는 다른 맑스주의 나름의 독특한 인식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외시한 채 여러 결정론에 빠져드는 것은 부르주아 인식론에 무릎꿇는 것이며, 이것은 맑스주의 속에서 부르주아 인식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맑스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튀세르는 맑스주의이론과 부르주아이론을 명확히 구분짓기 위해서는 우선 맑스주의 자체의 독특한 인식체계를 뚜렷이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맑스주의이론과 부르주아이론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맑스주의이론들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5] 이처럼 알튀세르는 부르주아 결정론에 맞선 맑스주의 반결정론을 전면에 내세움으

주의의 결정론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초결정'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때때로 문맥에 따라 '과잉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겠다. 하지만 앰허스트학파의 초결정론이 종래의 결정론을 완전 초월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결정론을 완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앰허스트학파의 초결정론은 극한까지 추구한 반결정론, 과잉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경계에서 양쪽에 모두 한발씩 내딛고 있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 이는 프로이드(S. Freud)가 《꿈의 해석》에서 꿈의 의미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축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Resnick & Wolff, 1987: 283). 후에 루카치(G. Lukacs)가 자신의 사회이론에 이 개념을 원용했으며, 이후 알튀세르(L. Althusser)가 사회구성체의 다양성, 다면성, 다층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끝으로 앰허스트학파의 레즈닉과 울프에 이르러 맑스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탈근대주의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5) 이러한 점은, 말할 것도 없이, 알튀세르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다. 맑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레닌, 루카치, 그람시(A. Gramsci) 등 거의 모든 맑스주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였던 바이다. 따라서 앰허스트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알튀세르가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 융합에 초석을 깐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에 부르주아의 결정론에 맞선 맑스주의 반결정론을 주장함으로써 알튀세르의 이론적 도약을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은 맑스주의 전통 안에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Shin, 1997) 참조.

로써 맑스 시대부터 맑스주의를 괴롭혀 왔던 경제결정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정론으로부터 맑스주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맑스주의 반결정론을 극한까지 추구한 초결정론이라는 강력한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6]

앰허스트학파는 근대주의 인식론의 특징은 본질론이라는 말에 가장 잘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근대주의 인식론은 똑같은 본질론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합리론과 경험론 간의 논의들이다. 본질론은 모든 복합체(혹은 주어진 대상)는 분석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그 핵심에 존재하고 있는 단순성(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Resnick & Wolff, 1987: 2-3). 따라서 지식의 궁극적 목적은 주어진 대상의 비본질적 결정요소들을 배제해 나감으로써 그 대상의 핵에 존재하는 본질적 결정요소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려낸 최종 결정요소야말로 그 대상의 본질이요 궁극적 원인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주어진 대상은 그 속에 존재하는 본질(궁극적 원인)의 결과인 것이다. 즉 어떤 대상(현상)과 그 본질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본질론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첫째,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뿐인 절대적 진리(본질)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 존재(알아야 할 대상)와 의식(알고자 하는 주체) 사이에는 근본적인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질론은 밖에 있는 세상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본질론의 입장에서 바깥 세상에 절대적 진리(본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미리 보장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무는 당연히 그 바깥 세상을 가장 잘 포착하고 정확히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론이라는 것은 진리(바깥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본질)를 파악하고 비추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진리와 그것의 획득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

---

6)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이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초석을 깔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알튀세르에 의해 완전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알튀세르 자신도 '최종적 경제결정'(determination by the economy in the last instance)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결정론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불러들였으며 또한 인식체계, 그의 표현으로는 "문제틀"(problematic)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이 비난하던 결정론의 한 형태인 근대주의의 합리론으로 빠져들기도 하였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졸고(Shin, 1995: 120-122) 참조.

은 터무니없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하며, 기껏해야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본질론의 진리란 미리 보장된 전제조건이며 인간이 획득해야 할 고착물이다.

경험론과 합리론은 이론의 궁극적 목적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런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라는 본질론적 입장을 공유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경험론에 따르면, "올바른 지식은 경험을 통한 감각적 사실에 의해 검증받은 것들이다"(Resnick & Wolff, 1993: 62). 진리의 본질(궁극적 결정요소)은 결국 경험적 사실성이다. 어떤 지식이 맞는가 틀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의 감각에 따라 모인 경험적 사실들, 즉 경험적 자료들이다. 바깥에 있는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 사이의 틈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감각이다. 경험론은 미리 보장된 전제조건(미리 상정된 절대적 진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기준 즉 경험적 사실성의 타당성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론 또한 미리 전제된 절대적 진리라든가 그 진리의 기준 — 합리론의 경우는 이성 —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리론에 따르면, "현실은 실재하는 것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지배받고 또 그 이성에 의해 인지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진리의 본질(궁극적 결정요소)은 구체적 사실성이 아니라 그 사실성의 밑에 존재하며 그 사실성을 지배하는 이성적 논리이다"(Resnick & Wolff, 1993: 62). 다시 말해 어떤 사실은 적절하고 어떤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고 결국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다.

경험론과 합리론이 각각 경험적 사실과 이성적 논리라는 서로 정반대의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들 모두 다양한 인과관계 속에서 본질적 원인(경험적 사실성이든 논리적 합리성이든)을 미리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론적이다. 둘째, 무수한 변수 중에서 궁극적 결정요소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결정론적이다. 셋째, 복합성을 단순성으로 축소(환원)시켜버린다는 점에서는 축소론(환원론)적이다. 넷째, 존재와 의식,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원론적이다. 다섯째, 최후의 하나뿐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절대론적이다.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은 이런 경험론과 합리론 모두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은 엄밀하게 반결정론, 반본질론, 반환원론, 반절대론, 반이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결정론은 "복합성이 원인결과 형식의 단순성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모든 추정"을 거부한다(Resnick & Wolff, 1987: 3). 따라서 이론화란 주어진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질적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반대로, 초결정론은 대상 속에서 개개의 모든 요소는 (그들 자신이 속한) 그 대상을 구성하는 데 각자 고유의 효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어진 대상 속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어떠한 서열 혹은 우선 순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이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지 하는 서열이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주어진 본질의 존재도 부인한다. 실상 어떤 총체 속에 존재하는 개개의 모든 요소는 그 총체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즉 주어진 총체 속의 모든 요소는 그 총체 속의 다른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원인인 동시에 다른 모든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결과인 것이다.

총체 속의 개개 모든 구성요소는 자신의 내부에 그 총체 속의 모든 다른 구성요소들의 흔적을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간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체는 그 속에 내재된 본질의 표출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인자들이 한데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과잉결정의 과정이다. 총체와 개개 모든 구성요소는 과잉중복결정의 과정을 그 존재조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과잉결정과정 속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무엇보다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실로 무한하다; 즉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고 더 나아가 다방향이며, 일면적이지 않고 양면적이고 또한 다면적이다. 한마디로 과잉결정의 원인결과 화살표는 본질에서 현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과잉결정과정 속에는 미리 보장된 본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현상, 원인/결과와 같은 이분법적 서열과 우선순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초결정론적 총체는 미리 주어진 고착물이 아니라 과잉결정과정의 산물이다. 모든 것은 모순 —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 속에 존재하며 언제나 변화 속에 존재한다. 무엇이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잉결정과정 속에 있어야만 한다. 곧 존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초결정론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 또한 다른 모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변화의 과정, 과잉결정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 이론화는 지식생산과정 — 사회라는 하나의 특별한 총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덩어리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론과 이론, 이론과 비이론적 측면, 나아가 이론과 사회의 관계는

모두 과잉결정의 과정이다. 이러한 이론의 초결정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의 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결정론적 이론은 이론의 정당성이 획득되는 진리와 진리기준 자체를 의심하고 심문한다. 초결정주의이론은 자기 이론의 진리와 진리기준을 바로 과잉결정과정 속에 위치시킨다. 본질론과는 반대로 초결정론적 이론은 어떠한 본질, 어떠한 진리도 미리 보장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초결정론 속에는 모든 이론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주담론"(Amariglio, 1987: 164)이나 "거대화술"(Lyotard, 1984: 34)과 같이 "이론과 이론을 망라한 진리의 기준"(Resnick & Wolff, 1993: 60)이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초결정론의 진리는 단수가 아닌 복수,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변증법적 의미로 — 이다. 즉 진리 자체가 과잉결정과정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복잡한 모순과 끝없는 변화 속에 있다. 결과적으로, 초결정론에 따르면 이론화작업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특정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론화작업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수동적 해석이 아니라 모순과 갈등관계에 있는 진리들의 주도권 다툼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진리라는 바깥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캐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은 모든 형태의 본질론에 대한 엄밀하고 가차없는 비판이다. 그의 초결정론은 경험론과 합리론이 똑같이 본질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한다. 또한 부르주아의 본질론에 맞서 맑스주의 초결정론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부르주아 본질론과 맑스주의판 본질론으로부터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 구분짓는다. 그는 맑스주의 인식론, 즉 초결정론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종류의 본질론은 부르주아 인식론이라고 거부함과 동시에 맑스주의판 본질론은 부르주아 인식론이 맑스주의내에 부활, 재출현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맑스주의 인식론적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이러한 그의 노력은 맑스주의를 근대주의의 이분법으로 해방시켜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가 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을 바탕으로 하는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모든 '진리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에 따르면 진리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적이고 상대적이다. 경험적 사실이나 합리적 논리는 절대적 진리의 궁극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진리들을 구축해내는 서로 다른 기준들 중의 일부일 뿐이다. 진리는 담론 밖에 절대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험적 사실이나 합리적 논리에 의해 노출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대안적 진리들이 서로 다른 이론틀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며 이론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지식(진리) 생산과정이다. 진리는 수동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론적 실천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절대적 진리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서로 상충되는 진리들의 생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론화과정은 모순과 갈등관계 속에 있는 다양한 진리들 가운데 자신의 진리를 구축 확보하기 위한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며 따라서 이론작업은 의식하든 못하든 필연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취한다.

3. 맑스주의 해체와 재구성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에 입각한 근대주의의 본질론에 대한 심오한 비판은 데리다(J. Derrida)가 주장하는 "근대주의적 이성중심주의와 형이상학의 해체", 푸코(M. Foucault)의 "담론의 형성", 그리고 라캉(J. Lacan)의 "주체의 구성과 탈중심화된 자아" 등과 같은 탈근대주의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알튀세르류의 탈근대주의는 다른 탈근대주의들과 의미심장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알튀세르의 근대주의 해체는 논쟁의 여지없이 맑스주의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전통적 맑스주의의 해체는 동시에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구성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해체와 재구성은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탄생을 가능케 했지만, 또한 애초부터 '최종적 결정론'과 이른바 '탈중심화된 총체성 속에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와 같은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갈등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7]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결정론에 응축된 알튀세르의 이론은 맑스주의를 모든 형태의 근대주의적·본질론적 이론틀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가장 심오하고 체계적인 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Callari & Ruccio, 1996: 1~2; Gibson-Graham, 1996: 213). 초결정의 논리를 통해서 알튀세르는 탈근대주의의 성격을 띠는 맑스주의의 혁신적 변형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

7)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음.

알튀세르의 초결정론을 바탕으로 하는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의 여러 개념들을 혁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본질론적인 총체는 그 속에 내재된 본질의 발현으로 구성된 표출적 총체(expressive totality)인 반면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총체는 어떠한 본질도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과잉결정된 총체이다. 따라서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과잉결정된 총체는 그 속에 본질/현상 혹은 심층/표면과 같은 이분법적 서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총체는 과잉결정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총체 속의 한 과정 혹은 한 장(場)이 다른 어떤 과정 혹은 장의 본질(원인) 또는 현상(결과)으로 설명될 수 없다. 총체 속의 한 요소는 다른 모든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고 동시에 다른 모든 요소들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다. 따라서 본질/현상, 심층/표면처럼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결정론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현상, 심층/표면 모두 서로가 서로의 존재조건이며 서로가 서로를 구성함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과잉결정과정 속에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본질론적 총체는 그 속에 미리 주어진 본질을 중심으로 표출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인 데 반해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과잉결정된 총체는 미리 주어진 본질(중심)이 없는 탈중심화된 총체(decentered totality)라고 할 수 있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탈중심화된 총체는 그 속에 미리 주어진 중심(본질, 기원)을 부정하고 대신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과잉결정과정 속에서 다면적·다층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게 (그렇지만 결코 하나로 축소될 수도 없게)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탈중심화된 총체는 본질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결집된 거대한 단일체가 아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파열적 복합체'이다.

이러한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과잉결정된, 탈중심화된 총체관은 사회구성체를 논의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사회적 공간을 하나의 원칙에 의해 결집된 거대 단일체가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로 이루어진 (그 중에 어느 한 과정도 미리 주어진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은) 파열적 복합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파열적 복합체는 상부구조/하부구조와 같은 이분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설명할 수 없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탈중심화된 총체 속에서 어느 한 과정이 다른 과정의 궁극적 원인 혹은 결과로 작용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대와 상부구조는 후자가 전자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그 역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의 존재조건이며,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며, 서로가 서로에 의해 구성되는 과잉결정과정이다. 따라서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 원인/결과, 본질/현상의 이분법적 관계는 성립

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필연적인 일대일 대응관계'를 전제할 수는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탈근대적 맑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인 일대일 대응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사실이다(Hall, 1985: 94).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결정론적 맑스주의의 '필연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탈근대주의의 '일대일 대응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모두를 거부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관점은 '특정 국면에서 특정한 대응관계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으며,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이며, 그 대응관계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기원(origin)에서 목적(telos)에 이르는' 일방향의 단선적 역사이해를 거부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에서는 역사 또한 일사불란한 거대 단일체가 아니라 이질적이고 비연속적인 파열적 복합체이다. 모든 역사이론은 그들 자신의 시간, 공간, 화술을 구축한다. 한마디로 역사는 응축된 과잉결정의 망(網)이다(Althusser & Balibar, 1979: 101; Wolff, 1995: 39). 이렇게 볼 때 역사는 잠재된 이성의 자기구현도 아니고 계급의식의 발현도 아니고 한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 가는 단선적 진보도 아니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미리 정해진 기원에서 출발하여 미리 정해진 궤도를 따라 미리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도식적 역사이해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복잡한 교직(交織)'으로 이루어진 응축된 과잉결정망(網)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것이다. "역사의 모든 요소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자연적 총체 속의 모든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며 …… 과잉결정된 구성의 논리가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대체한다"(Wolff, 1996: 153). 이와 같이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본질론에서 미리 보장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기원과 목적을 동시에 거부한다.

역사를 구성하고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간대의 복잡한 교직'이라는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역사인식은 한 사회구성체 속에 여러 다른 사회관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나란히 확대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체를 서로 다른 여러 사회관계의 복잡한 교직으로 본다(심지어 한 사회구성체를 서로 다른 여러 계급구조의 복잡한 교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람시의 지적처럼, "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사회들을 통하여 개인들은 인류에 속하는 것이다"(Gramsci, 1971: 353). 이 서로 다른 여러 사회관계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궤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모든 다른 궤도들에 대해 영향을 미

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어떠한 궁극적 목적이나 초역사적 동인(動因)도 이러한 상호 과잉결정하는 궤도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를 지배할 수는 없다.

한 역사 속의 여러 다른 역사들, 한 사회 속의 여러 다른 사회들과 같은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초결정론적 개념은 한 주체(subject)에 한 정체성(identity)이라는 일대일 대응 역시 거부한다. 주체는 객관적으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허위의식이 아닌 상징체계)의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과잉결정된 총체가 거대한 동일체가 아니라 탈중심화된 다면적 복합체이듯이, 이렇게 구성된 주체 역시 안정된 동심원(同心圓)적 단일체가 아니라 탈중심화되고, 균열된, 모순적,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즉 한 정체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복합체다. 이렇게 구성된 주체의 정체성 역시 보편·영원한 하나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불확실한 여러 정체성의 복합체다. 정체성은 계급, 성, 인종, 종교, 국적, 가정, 심리적 기질 등 무수한 정체성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정체성들은 다른 모든 정체성들과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 있는데 그 어떤 정체성에게도 그런 상호관계 속에 특권적 위치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리 주어진 주체가 그에 맞는 정체성을 띠고 사회 속에 정해진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배정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주체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즉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열려있는 주체'에서 노동자-계급의식-계급정치로 이어지는 '닫혀진 필연'은 기대할 수 없다. 주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열려 있는 가능성에 따르면, 한 개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계급과정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개인은 특정 순간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계급과정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계급 정체성은 잠재적으로 여러 개로서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Gibson-Graham, 1995: 7).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닫혀진 필연성'을 거부하고 이러한 '열려진 가능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4. 다양성 속의 통일성

초결정론에 바탕을 둔 앰허스트학파의 이러한 맑스주의의 해체와 재구성은 맑스

주의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다른 한편 '탈중심화된 총체성 속에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숙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계급문제에 대한 자신의 집착, 다시 말해 탈중심화된 사회총체 속에서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계급의 중심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결국 계급을 '본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탈근대적 맑스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맑스주의를 아끼고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애초에 이런 풀리지 않는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시작한 것이며 그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참여점'(entry point)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조금 더 발전시켜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복잡한 갈등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에 완벽하게 배타적인 경직된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이분법을 뛰어넘으려는 한 시도를 제시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반근본론과 그 '상대방'인 근본론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계급이라는 자신의 참여점을 본질론적 '순간'으로 끌어안는다. 이러한 본질론적 순간은, 비록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지만, 뒤따르는 이론화 작업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종합될 것이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에서 계급의 중심성은, 첫째, 참여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참여점으로서 계급이란 계급이 사회를 이해한다거나 사회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분석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꼭 강조해야 할 사항은 참여점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본질 혹은 궁극적 원인으로서 갖는 중요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분석의 초점과 조직원리로 선택된 점들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도덕적 목적을 표현하고 논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점들에 주어지는 '중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이론의 논리 속에서 특수한 위치로 올려진 인과관계로서 '중요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Resnick & Wolff, 1992: 36).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참여점으로서 계급이 갖는 중요성은 분석의 초점으로는 인정하지만 이론의 논리 속에서 특권적 위치는 부인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에서 계급은 사회 속의 다른 비계급적 면들과 관계를 통하지 않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계급이 사회의 다른 비계급적 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계급을 참여점으로 선택하는 것은 계급을 본질화하려는 시도, 즉 사회 속의 모든 비계급적 면들을 계급이라는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싸안아 버리려는 시도가 아니다. 참여점으로서 계급은 사회 속에서 계급과 비계급적 면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계급의 담론과 그 상대방인 비계급의 담론을 동시에 다 필요로 한다. 게다가, 참여점을 택하고 그 참여점을 시작으로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결코 '결백'할 수 없는 과정이다. 가능한 참여점이 실로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개인이 한꺼번에 모든 가능한 참여점을 동시에 취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중에서 무엇인가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의식하든 못하든 특정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론화과정은 피할 수 없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둘째,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자신이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했듯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경직된 이분법도 해체하고자 한다.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꼭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풀리는 것은 아니다.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의 관계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이다. 실상 탈근대적 맑스주의가 이런 경우 최상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주의 속에 탈근대주의적 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탈근대주의도 그 속에 근대주의적 순간을 품고 있다. 이 점에 관해 탈근대적 맑스주의자들은 때론 은연중에 때론 확실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곤 하였다. 예를 들면, 깁슨-그레이험은 본질론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우리)는 본질론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비근본론이라기보다는) 반근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Gibson-Graham, 1996: 214). 다른 예를 들면, 레즈닉과 울프는 그들이 보는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대주의의 경계는 — 그 반대쪽에 탈근대주의가 존재한다 —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구멍투성이다. 탈근대적 순간들이 근대주의 속에 출몰하고 침입하며 근대주의를 방해한다. 경계는 언제나 위기에 있다. 경계 너머의 '상대'가, 근대주의의 주도권에 도전해서 전복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으로 대체

시키기 위해 언제나 그의 '상대'에 반해 돌아설 수 있다고 위협한다. 근대주의는, 상처 입은 채 그리고 탈근대적 순간들의 분열을 간직한 채, 오래 지속될 수 있다"(Resnick & Wolff, 1995: 1).

칼라리와 루치오 역시 "도대체 어떤 단절 혹은 결렬이 '완결'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겠는가?"(Callari & Ruccio, 1996: 33)라고 반문하며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이러한 비완결성·비결정성이야말로 바로 탈근대적 맑스주의를 위한 하나의 존재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대성과 탈근대성 사이에 결정적 단절을 설정하고 싶겠지만, 그 단절은 절대로 전체적이고 완전할 수가 없다. …… 그 단절이 얼마나 심대하든, 탈근대성은 그 안에 근대성의 '자취들'을 감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 탈근대주의 속에 계속되는 근대주의적 자취들의 이러한 지속성이(해방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맑스주의의 존재(재구성된 맑스주의이기는 하지만)가 계속 필요한 이유이다"(Callari & Ruccio, 1996: 27~28).

완벽하게 순수한 경험주의 혹은 합리주의라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면에서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근대주의 혹은 순수한 탈근대주의라는 것도 순전히 이론적인 면에서만 가능하다. 탈근대적 맑스주의가 완전하게 탈근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초결정론적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탈근대적 맑스주의 자체도 결집된 단일체가 아니라 담론 안과 밖의 수많은 모순과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분열적 흐름이다. 탈근대적 맑스주의 역시 동질성, 조화, 통일 이런 것보다는 이질성, 갈등, 차이에 의해 특징지워진 장이다.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경직된 이분법을 거부함으로써, 울프는 자신의 참여점이라는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결정론적 이론은 "그 '상대'인 근본론적 순간이 반근본론적 분석과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반근본론에 대한 원칙적 헌신을 재강화한다"고 주장한다(Wolff, 1996: 151). 초결정론은 '자신의 부정', 즉 본질론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론적 순간은 다시 "다소 전형적인 헤겔주의적 변증법적 리듬에 의해 부정되거나 무효화된다"(Wolff, 1996: 156). 근대주의적 닫힘의 순간은 탈근대주의적 다양성의 순간에 의해 다시 열린다. 실로 초결정의 전체 장에서 보면, 근대주의적 닫힘의 순간은 다른 순간에 포착된 탈근대적 다양성의 여러 순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초결정론으로 비약은 '계속적인 단절'(Althusser, 1976: 66~67)이어야만 한다. 즉 귀환점이 없는 출발, 영원한 시작이다.

이와 같이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경직된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본질론적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근대주의는 거대 단일체(즉 다양성 없는 통일성)에 대한 집착으로 특징지워지는 데 반해, 탈근대주의는 다양성의 무조건적 찬양(즉 통일성 없는 다양성)으로 특징지워진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다양성과 통일성 모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이 통일성은 고정된 통일성이 아니라 탈중심화된 총체 속에서 "끊임없는 미끄러짐, 영원한 불확실성"(Hall, 1985: 92)으로서만 존재하는 통일성이다. 이 통일성은 모순에 찬 단일체이며 파열적 단일체이다. 이러한 모순에 찬 파열적 통일성은 이름 그대로 항상 새롭게 조율되고 또 재조율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탈근대적 맑스주의는 탈중심화된 사회총체 속에서 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성(비록 파열적인 통일성이지만)의 순간을 도출해내기 위한 끊임없는 조율과 재조율의 과정이다.

참고문헌

맑스(Marx, K.)(1991),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 I권》, 김세균 감수, 최인호 외 역, 185-189, 박종철 출판사.

Althusser, L. (1976), *Essays in Self-Criticism*, tr. by G. Lock, London: NLB.

_____(1990), *For Marx*, trans. by B. Brewster, London/New York:

Althusser, L. and E. Balibar(1979), *Reading Capital*, trans. by B. Brewster, London/New York: Verso.

Amariglio, J. (1987), "Marxism against Economic Science: Althusser's Legacy", in P. Zarembka(ed.),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Vol. 10, 159-194, Greenwich, Conn.: JAI Press.

Callari, A. and D. Ruccio(1996), "Introduction: Postmodern Materialism and the Future of Marxist Theory", in A. Callari and D. Ruccio(eds.), *Postmodern Materialism*, 1-48,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Gibson-Graham, J.K. (1995), "A Book of Class Analyses", Mimeo.

Gonson-Graham(1996), "Althusser and Capitalism: An Encounter in Contradiction", in A. Callari and D. Ruccio(eds.), *Postmodern Materialism*, pp. 212-230,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s. and tr. by Q. Hoare and G. Smith,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Hall, S. (1985),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2:2(June): 91-114.

Lyotard, J-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trans. by G. Bennington and B.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snick, S. and R. Wolff(1987), *Knowledge and Class: A Marxian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1992), "Radical Economics: A Tradition of Theoretical Differences", in B. Roberts and S. Feiner(eds.), *Radical Economics*, pp. 15-43,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_____(1993), "Althusser's Liberation of Marxian Theory", in E.A. Kaplan and M.

Sprinker (eds.), *The Althusserian Legacy*, pp. 59~72. New York: Verso.

_____(1995),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Mimeo.

Shin, J-Y. (1995), "Althusser's Contribution to a Postmodern Marxism (Overdeterminist) Marxism", *Rethinking Marxism* 8:2 (Summer): 112~122.

_____(1997), "The Postmodern Moments in the Marxist Traditio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Wolff, R. (1995), "Magritte: A Painter Brushes with Overdetermination", *Rethinking Marxism* 8:1 (Spring): 27~47.

_____(1996), "Althusser and Hegel: Making Marxist Explanations Antiessentialist and Dialectical", in A. Callari and D. Ruccio (eds.), *Postmodern Materialism*, pp. 150~163,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abstract

Marxism And Postmodernism
The Postmodern Marxism of The Amherst School

Jo-Young Shin

Marxism has a rich and diverse tradition. It is of crucial importance not to identify one interpretation or one particular trend within Marxism with the whole of the Marxist tradition. Recognizing that there is not one Marxism but many may indeed be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understanding and appraisal of the Marxist tradition—whether such analysis takes a critical or a sympathetic stance. Likewise, there exists no single conception of Marxism and postmodernism; there are multiple, complex, and often contradictory formulations found in the literature. It is within this complexity that I situate my discussion of Marxism and postmodernism. It is an attempt to go beyond or break out of the 'either/or' dichotomy between Marxism and postmodernism.

Postmodern thinkers and modernist Marxists tend to think of Marxism and postmodernism as oppositional and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s. My argument is that there are, however, points of articulation between Marxism and postmodernism. What is more, these points of articulation can be found emanating from the Marxist tradition. Building upon Althusser's commanding notion of overdetermination, the Amherst School elaborates a postmodern Marxism that does not take Marxism and postmodernism as oppositional and alternative but sees them as closely related or even as inseparably linked in taking Marxism in new directions.